



5면

'학생 정책제안'으로 성사
재활용 환경더하기 공간 개소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음 11월 9일) 제2685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식당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겨울스포츠시설 집합 금지...

성탄절·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전북도, '정부 특별대책' 따라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원칙
도내 주요 해맞이·해넘이 행사장 폐쇄도

전북도는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1일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의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에 대해 단계적 특별대책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해 전국에 동일조치를 일괄 적용하고, 이번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는 모든 일정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우선, '요양병원·시설, 정신의료기관'에서 종사자는 사적 모임 금지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배정 등을 통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 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또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경기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집합금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

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은 수용이 금지된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이 금지된다.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의무화, 마스크를 벗는 상황 최소화를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가 의무화된다.

밀집이 예상되는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해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방역조치로 숙박시설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면제 방안과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결핵 퇴치 위해"... 김승환 교육감, 크리스마스 썰 모금 증명

김승환 교육감은 대한결핵협회의 결핵 퇴치를 위한 봉사모금 활동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크리스마스 썰 모금액은 학생 행복나눔 지원, 결핵환자 및 결핵 후유증 환자 보호시설 지원, 의료취약계층 대상 검진사업 등에 사용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는 이번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 동안 집합금지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 방역수칙이 강화된 종교시설, 숙박시설, 식당,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

한 시·군 합동점검도 강화해 실시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금은 전국 어떤 곳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연말연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빈틈없이 실천하는 것만이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모든 도민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효상 기자

전북도, 도내 농업용 저수지 전수조사 추진

1786개소 54억원 투입
민관공 합동 표본점검

전북도가 도내 농업용 저수지 전수 조사를 추진해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도는 전국 최초로 예산을 편성해 2021~2022년도 2년에 걸쳐 도내 시·군 관리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전수 정밀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저수지 정밀조사는 시·군관리 저수지 전체 1,786개소에 54억 원을 확보, 전문장비를 활용한 점검을 실시한다.

2021년도에는 893개소에 27억 원을 투자해 저수지 제체 및 여방수로 상태, 취수탑, 사·복통의 시설 결함과 노후상태, 전기비저항 탐사 등을 이용한 누수여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저수지 안전등급을 현행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점검결과에 따라 위험요소는 즉시 개·보수하고, 상태등급이 미흡한(D등급) 저수지에 대해서는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 연차별 저수지 보수·보강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정비법' 제18조 규정 에 따른 저수지 관리주체의 분기별 정기점검뿐 아니라 전국 최초로 도 주관 민·관·공 합동으로 표본점검을 매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7월~9월까지 노후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주체인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도는 저수지 점검 이행실태를 확인(모니터링)하기 위해 도 주관 민·관·공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유효상 기자

도, '어름뚱' 종자 생산 성공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어름뚱' 종자 인공생산에 성공했다.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어름뚱 종자생산 시험연구 끝에 전국 최초로 종자 생산에 성공, 독자적인 종자생산 기술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산기술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온대성 어종인 어름뚱 종자생산 기술개발을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왔다. 연구소는 어름뚱 종자생산 기술개발을 위해 2016~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자연산 어미를 확보했다.

작년부터 산란기인 6월에 성숙유도 호르몬 처리를 통해 수정란 채란 기술을 확보했고, 올해에는 단계적 먹이 공급을 통해 어름뚱 종자 약 2만 마리 생산에 성공했다. /유효상 기자

내년 1월 정기인사 832명

도교육청, 승진 157명·전보 428명·신규임용 86명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4급 이하 지방공무원 832명에 대한 내년 1월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승진 157명, 전보 428명, 장년(명예)퇴직 76명, 신규임용 86명 등 총 832명에 대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책공보관 기획·소통협력담당에 양서연 서기관, 교육연구실 행정전수부장에 김현주 서기관,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에 김

명희 서기관,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에 김인수 서기관, 부안교육문화회관 관장에 조창근 서기관,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에 박성현 서기관이 전보 발령됐다.

또한 감사관 청렴·총괄감사담당에 안홍일 사무관, 재무과장에 안홍선 사무관, 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에 전현규 사무관,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에 변애자 사무관, 학생해양수련원



양서연 담당



김현주 부장



김명희 관장



김인수 관장



조창근 관장



박성현 국장

총무부장에 이옥세 사무관, 시설과장에 심환무 사무관, 중앙교육연수원(교육훈련 과건)에 김형태 사무관, 최원창 사무관이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마지막으로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전보는 개인별 전보희망을 반영하는 전보희망제에 따라 197명을 본인의 희망지역에 배치했으며, 신규임용 공무원은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결원기관 및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해 발령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경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장기 근속자 순환전보로 조직 운영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